

## 비행청소년의 범죄유형에 따른 재범 위험성 차이에 관한 연구 -비행촉발요인 조사서와 PAI 검사결과를 중심으로-\*

이남희 이봉건+  
충북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일선경찰서에서 범법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심리사가 심리평가 업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구인 비행촉발요인 조사서와 PAI 성격검사 상으로 범법청소년의 범죄유형별 특성이 구분되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충북 청주시와 대진광역시에서 경찰서에 첫 입건된 비행청소년 333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범죄유형을 절도·폭력·공갈집단으로 구분하고 범죄유형별로 비행촉발요인과 PAI성격특성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비행촉발요인조사서의 가족기능적위험, 학교관련위험, 비행관련위험, 가출위험, 개인적위험 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I 성격검사 중 긍정적 인상(PIM), 공격성(AGG), 자살관념(SUI), 인지적 불안(ANX-C), 외상적 스트레스((ARD-T), 활동수준(MAN-A), 피해망상(PAR-P), 자기중심성(ANT-A) 척도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이 결과는 비행청소년의 범죄유형에 따라서 비행유발요인과 성격특성이 각기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첫 입건된 비행청소년들 중에서 재입건된 비행청소년들을 선별하여 비교함으로써 범죄유형별 재범위험요인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분석결과, 절도집단의 경우 비행관련위험, 가출위험 요인이 예측변인으로 드러났으며, PAI 임상척도에서는 불안(ANX), 자살관념(SUI), 정서적 불안(ANX-A), 피해망상(PAR-P)이 예측변인으로 드러났다. 폭력집단의 경우, 가족구조적위험, 가족기능적위험, 학교관련위험, 비행관련위험 요인이 예측변인으로 드러났으며, 임상척도에서는 지배성(DOM), 정서적 불안(DEP-A), 피해망상(PAR-P)이 예측변인으로 드러났다. 공갈집단에서는 비행관련위험 요인이 예측변인으로 드러났으며, 임상척도에서는 저변도(INF), 조증(MAN), 반사회적 특징(ANT), 스트레스(STR), 반사회적성격(ANT-A), 공포증(ARD-P), 언어적공격성(AGG-V)이 예측변인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는 비행촉발요인과 PAI 성격검사결과가 비행청소년의 재범가능성을 예측해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주요어 : 비행청소년, 범죄유형, 비행촉발요인조사, PAI, 재범위험성

자신을 욕하고 다니는 바람에 사귀던 남학생이 헤어지 을 휴대폰 동영상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사건,  
게 됐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집단폭행하고 이 장면 10세·12세 소년들이 흥기를 이용해 잔혹한 살인을 벌인

\* 이 논문은 2008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이봉건,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 48번지, 충북대학교 사회대 심리학과, 전화 : 043) 261-2191,  
E-mail : clinpsy@chol.com

사건 등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세간에 알려지면서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다는 현실에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바 있다(국정브리핑, 2007).

이처럼, 청소년비행이 심각해지고 재범이 증가하면서 재범 위험성의 예측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강력범죄의 대다수가 소수의 범죄자에 의해 반복적으로 저질러지며, 이들 상습범은 청소년기 조발비행으로 범죄행각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비행청소년의 사법적 처우에서는 범죄유형별로 재범가능성을 예측할 필요가 현실적으로 시급하다. 일선경찰서에서는 범죄심리사가 범법청소년을 조사할 때 비행축발요인 조사서를 작성하고 PAI 성격검사를 실시해서 재범가능성의 정도를 판단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다. 이 자료는 사법기관에서 범법청소년의 사법적 처우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두 도구의 결과상으로 범법청소년의 범죄유형별 특성이 구분되는지와, 재범위험성을 예측하는데 실제로 유용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크다. 경찰서 파견 범죄심리사의 실무에서 늘 하는 업무이지만, 이런 측면의 조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범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에 관한 이동원(2003)의 연구에서는 재범횟수, 시설에서의 참여 및 몰입정도, 법과 사회에 대한 태도, 낙인인지 등이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범죄자의 경우에는 그 횟수가 거듭할수록 흉포화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청소년과 초범청소년을 비교 연구한 김현수와 김현실(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반사회성 및 공격성과 같은 비행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성격특성, 비행연령의 저하에 따라 비행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 비행시의 연령은 청소년재범예측요인으로 가장 높은 판별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첫비행시의 연령이 낮을수록 재범을 저지르기 쉽다는 저연령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초범의 연령이 재범과 높은 관련이 있는 특성으로 보고하였으며 반사회적 성격장애, 신체적 학대력, 적대감 등도 재범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서동혁, 정선주, 손창호, 김원석, 고승희, 함봉진, 조성진, 김영기, 이중재, 2001). 한재숙(2004)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비행연령이 낮을수록, 비행친구들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또래의 비행

성향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고 학교에서 중도탈락의 위험성이 높을수록 재비행의 위험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지은(1998)의 연구에서는 첫 비행 연령이 낮을수록, 첫 비행 후 학교분위기에 적응을 못할수록, 첫 비행 후 학교로부터 단절을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그리고 첫 비행 후 또래의 비행성이 높을수록, 재비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비행은 주로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험요인이라 개인이 다른 사람에 비해 발달상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높아지도록 하는 특성 및 변인으로 정의된다(유성경, 이소래, 2001). 청소년 비행은 비행수준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며(Guerra, 1999; Laub & Lauritsen, 1993), 특히 상습적으로 폭력 비행을 저지르는 비행청소년은 초기단계의 비행청소년과는 그 특성이 구분되며, 초기 비행유발요인과 재범률과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endreau & Goggin, 1996; May, 1999). 따라서 상습적 폭력비행 청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한 개입 전략이 요구된다(Howell, 1998).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과 더불어 범법자나 범법 행위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성격특성을 가정할 수 있으며(Gottfredson & Hirschi, 1990), 범죄와 성격에 관한 연구 중에 어떤 독특한 성격 특성이 범죄자에게서 발견되는 주장이 있다(Cleckley, 1976). 반사회적, 또는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이 재범과 연관된다는 것은 기존 연구들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Hear, 1991). 또한 이러한 성격특성은 가족이나 또래 관계와 같은 변인과는 독립적임이 밝혀졌다(Hoge, Andrew, & Leschied, 1994). 현재까지 비행청소년들의 성격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어 온 도구들은 정신병질 조사표나 Weinberger 적응척도(Weinberger Adjustment Inventory)와 같이 특성 성격장애나 특성에 초점을 두고 고안된 것들이거나 특성 성격장애나 특성에 초점을 두고 고안된 것이거나, 다면적 인성검사, 성격요인검사 등과 같이 만성적인 부적응적 행동패턴을 평가하는 것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수정과 윤옥경(2003)이 개발하여 일선경찰서 범죄심리 조사실무에서 사용 중인 비행축발요인 조사서와, PAI로 평가하였다. PAI는 범죄자의 성격특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함은 널리 입증되어 있으며(Hear R. 1991), 일선경찰서 파견 범죄심리사의 조사실무에서 비행축발요인 조사서와 함께 사용

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서에 입건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실무에서 사용중인 도구들의 유용성을 조사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범죄유형별로 비행축발요인과 PAI 성격특성 상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범죄유형별로 재범위험성의 차이를 조사하여 재범예측에 유용한 관련 요인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사회와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비행청소년에게 적절한 개입방법,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적 접근, 그리고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방 법

###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2005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의 ○○경찰서에 입건된 청소년 242명(남자 209명, 여자 32명), 판내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26명(남자 22명, 여자 4명), 대전광역시 소재의 ○○경찰서에 입건된 청소년 70명(남자 36명, 여자 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비행청소년은 범죄심리사와 일대일의 구조화된 면담을 한 후 PAI성격검사지에 응답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비행청소년 337명의 평균 연령은 15.6세이었다. 이중 남자청소년은 267명(79.2%)이고, 여자청소년은 70명(20.8%)였다. 입건 시 죄명으로 범죄유형을 구분하였는데 절도집단이 185명(54.9%), 폭력집단 90명(26.7%), 공갈집단 58명(17.2%), 무면허, 사기 등 기타범법행위 집단이 4명(1.2%)이었다. 절도집단은 순수한 대물취득으로 오토바이절도나 금품을 절도한 집단, 폭력집단은 교내·교외폭력을 한 집단, 공갈집단은 폭력을 동반한 금품을 취득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 평가도구

#### 비행축발요인조사

비행축발요인조사서는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별 비행요인은 가족의 구조적 위험요인, 가족의 기능적 위험요인, 학교생활요인, 가출경험요인, 비행전력요인, 개인적 위험요인 및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의 구조적 위험요인은 가족결손여부,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

유무, 가족의 기능적 위험요인은 가정불화나 냉담, 가족 간 신체 및 언어적 폭력유무, 가족 간 심리적 학대정도, 보호자와 애착 및 관심의 정도, 가족 구성원 중 전과자유무가 있다, 학교생활요인은 학력, 장기 결석이나 잦은 무단결석, 학교생활 적응의 문제, 학교에서 경교나 정학경험, 상급학교 진학예정, 교유관계, 가출경험요인으로는 가출경험, 가출하여 어울릴 친구들 유무, 가출한 후 집단생활 경험, 비행전력요인으로는 경찰서 입건, 유죄판결 전력, 소년원이나 교도소 경력, 보호관찰위반 경력, 비행전력 중 폭력, 강도, 살인 경험, 본 비행내용, 사전모의 혹은 계획여부, 비행수법, 비행전력의 점진적 심각성, 최초 비행 연령이 있다. 개인적 위험요인으로는 음주유무, 본드나 가스경험, 술이나 약물 중독·남용여부, 인터넷 중독, 성경험으로 인한 문제, 성매매 경험, 본 범죄에 대한 책임인식, 피해자 입장이해,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인식, 준범의식, 인생 목표의 현실성 및 노력정도, 인지능력 손상, 정서상태, 대처능력, 충동적 행위 탐닉, 분노경험, 상담태도가 있다. 이 조사서는 최근 범죄발생에서 특히 더 중요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비행청소년의 반사회적인 태도나 책임의식 등 역동적 위험요인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위험성 평가도구와 달리, 비행축발요인조사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 흔히 가외로 조사되는 가족기능이나 학교적용 관련 요인을 충실히 다루도록 조정되었다(이수정, 윤옥경, 2003). 이 조사서는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내적합치도는 .86이었다. 평가자간 신뢰도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련 중인 범죄심리사들을 대상으로 측정된 것이 있는데, 그 값이 .92로 보고되었다(이수정, 조은경, 2004). 본 연구에서 비행축발요인조사서의 내적합치도는 .83이었다.

####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성격평가 질문지(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 PAI)(Morey, 1991)는 성격과 정신병리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검사로 임상장면에서 환자나 내담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PAI는 기존의 다른 자기보고식 설문지보다 사법 현장에서 교정대상자를 평가하는데 유용하다(Gacono, Meloy, Sheppard, Septh, & Roske, 1995; Morey, 1991; Wang, 1999). 최근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PAI가 수형자 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해

표 1. 비행촉발요인의 범죄유형별 평균, 표준편차 및 F값

	절도	폭력	공갈	F
가족구조적위험요인	.46( .62)	.53( .60)	.64( .81)	1.62
가족기능적위험요인	.66(1.12)	.94(1.7 )	1.14(1.47)	4.07*
학교관련위험요인	1.28(1.12)	2.03(1.76)	1.81(1.33)	12.85***
비행관련위험요인	1.72(1.52)	3.19(1.83)	3.29(1.59)	36.71***
가출위험요인	.70( .94)	1.09(1.16)	1.12(1.23)	6.03**
개인적위험요인	3.64(2.50)	5.27(2.14)	4.91(3.16)	14.51***

\* $p<.05$ , \*\* $p<.01$ , \*\*\* $p<.001$  ( )는 표준편차

준다는 것을 지적해주는 동시에 교정 집단이나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활용 가능성을 시사해주었다(박은영 등, 2002). PAI는 총 34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중간이다”, “매우 그렇다”의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있다. 타당도 척도는 수검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비밀관성, 저빈도, 부정적 인상, 긍정적 인상 4개의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임상척도는 신체적 호소, 불안, 불안관련장애, 우울, 조증, 망상, 정신분열병, 경계선적 특징, 반사회적 특징, 음주문제, 약물사용 11개의 척도로 구성된다. 치료고려 척도는 치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격성, 자살관념, 스트레스, 비지지, 치료거부의 5개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대인관계척도는 대인관계적 측면을 평가하는 지배성, 온정성의 2개 척도로 구성되었다. 9개의 임상척도와 치료고려척도 중 공격성은 하위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각 척도는 T점수로 환산되며, T점수 70이상은 비정상적인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김영환, 박은영, 정상문, 홍상황, 2002). 표준화 연구결과(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2001), PAI의 내적합치도는 .60~.88,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77~.91 범위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5이었다.

####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우선 비행청소년의 범죄유형에 따라 비행촉발요인조사서의 점수와 PAI척도점수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한 결과에 대하여 ANOVA와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범죄유형별 재범위험변인을 예측하기 위해서 동중재법에 대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범죄유형별 비행촉발요인 분석

절도·폭력·공갈집단 간에 가족기능적위험요인( $F(2, 330)=4.068, p<.05$ ), 학교관련위험요인( $F(2, 330)=12.85, p<.01$ ), 비행관련위험요인( $F(2, 330)=36.71, p<.01$ ), 가출위험요인( $F(2, 330)=6.03, p<.01$ ) 그리고 개인적위험요인( $F(2, 330)=14.51, p<.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이는 범죄유형별로 비행 유발 요인이 각기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절도집단의 경우 비행촉발요인 5개 영역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관련위험요인과 개인적위험요인에서는 폭력집단이 공갈집단보다 평균점수가 높았다. 이와 반대로 비행관련위험요인과 가출위험요인에서는 공갈집단이 폭력집단보다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표 2). 이는 범죄유형 중 죄질이 가장 낮은 절도집단이 죄질이 높은 폭력·공갈집단보다 비행유발 요인이 적다는 것을 시사한다. 폭력·공갈집단 간에 비행촉발요인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폭력집단의 경우 장기결석, 교내처벌, 비행전력을 가진 친구의 존재, 개인관습 및 성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갈집단의 경우 이전 범죄로 파출소나 경찰서 입건, 절도수법 인식 및 사전모의, 만12세 이전 조기비행 경험, 상습적 가출, 가출 후 집단생활 경험의 영향을 더 많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범죄유형에 따른 PAI분석

절도·폭력·공갈집단 간 PAI 프로파일을 비교한 결과, 타당도 척도 중 긍정적 인상척도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2, 330)=3.12, p<.05$ ), 치료고려척도 중 공격성척도( $F(2, 330)=3.36, p<.05$ ), 자살관

표 2. 범죄유형별 Tukey검증 결과

비행축발요인	사후검증결과
가속기능적위험요인	공갈> 절도
학교관련위험요인	폭력> 공갈> 절도
비행관련위험요인	공갈> 폭력> 절도
가출위험요인	공갈> 폭력> 절도
개인적위험요인	폭력> 공갈> 절도

넘척도에서( $F(2, 330)=6.38, p<.01$ )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이는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성이 범죄유형별로 긍정왜곡, 잠재적 공격성, 자살에 대한 양가 감정에서 차이를 시사한다.

사후검증 결과 긍정적 인상(PIM)과 자살관념(SUI)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죄질이 좋지 않을수록

공격성(AGG)이 더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공격성(AGG)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행청소년의 경우 범죄유형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서 범죄유형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긍정적 인상(PIM)에서는 절도집단이 폭력집단보다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자살관념(SUI)에서는 폭력집단이 절도집단보다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절도의 경우 대부분 오토바이절도의 중범으로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혼방 처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조금 더 좋게 보여 처벌을 면하려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폭력집단의 경우 절도집단보다 정서적 불안, 우울감이 높은 편이며, 자살사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폭력·공갈집단 간 PAI 하위척도를 비교한 결과, 인지적 불안( $F(2, 330)=3.26, p<.05$ ), 외상적

표 3. PAI척도의 범죄유형별 T점수평균, 표준편차 및 F값

	절도	폭력	공갈	F
<b>타당성척도</b>				
비일관성(ICN)	45.76(11.90)	43.80(13.00)	46.91( 9.66)	1.38
저빈도(INF)	49.52( 9.68)	48.32( 8.05)	49.67( 9.73)	.59
부정적 인상(NIM)	51.57(11.95)	52.23(12.70)	50.07(10.95)	.58
긍정적 인상(PIM)	49.54(11.03)	46.06(10.90)	47.10(12.66)	3.19*
<b>임상척도</b>				
신체적호소(SOM)	48.05( 9.56)	49.96(10.46)	49.98(10.42)	1.52
불안(ANX)	48.30(10.65)	51.28(11.89)	50.40(10.39)	2.49
불안관련장애(ARD)	49.56(10.05)	52.23(11.57)	49.47( 9.50)	2.22
우울(DEP)	52.46(11.28)	54.32(12.92)	52.57( 9.95)	.83
조증(MAN)	49.84(12.39)	52.18(12.08)	48.05(10.08)	2.26
망상(PAR)	49.15( 9.70)	51.43(11.44)	50.21(10.35)	1.51
정신분열병(SCZ)	46.94(11.28)	48.67(11.25)	46.93(10.12)	.80
경계선적특징(BOR)	50.74(10.72)	52.92(11.91)	50.84(11.43)	1.23
반사회적특징(ANT)	54.92(10.75)	54.79(10.93)	55.29(11.78)	.04
알코올문제(ALC)	52.11(11.15)	52.72(11.44)	52.72(12.80)	.12
약물문제(DRG)	50.64( 9.52)	50.30( 8.66)	51.33(11.24)	.20
<b>치료고려척도</b>				
공격성(AGG)	52.04(11.47)	55.52(12.12)	55.12(11.62)	3.36*
자살관념(SUI)	46.41( 9.43)	51.17(12.12)	47.98(10.27)	6.38**
스트레스(STR)	53.65(11.75)	55.07(10.53)	55.09(13.30)	.60
비지지(NON)	47.33(10.38)	47.89(10.83)	49.22(11.71)	.69
치료거부(RXR)	50.74(11.43)	48.86(10.76)	52.33( 9.92)	1.85
<b>대인관계척도</b>				
지배성(DOM)	51.44(10.06)	53.42( 9.25)	51.36( 9.01)	1.40
온정성(WRM)	51.54(10.62)	53.57( 9.33)	52.33( 9.53)	1.23

\* $p<.05$ , \*\* $p<.01$  ( )는 표준편차

표 4 PAI하위척도의 범죄유형별 T점수평균, 표준편차 및 F값

	절도	폭력	공갈	F
전환(SOM-C)	49.37(10.47)	51.43(11.26)	50.71(11.42)	1.18
신체화(SOM-S)	47.84( 9.65)	50.02(10.13)	49.02( 9.31)	1.57
건강염려(SOM-H)	48.02(10.96)	47.84( 8.94)	48.22( 8.02)	.03
인지적불안(ANX-C)	48.4(10.70)	51.87(11.65)	48.83( 9.24)	3.26 *
정서적불안(ANX-A)	48.21(10.31)	49.53(11.67)	50.09(10.04)	.91
생리적불안(ANX-P)	49.83(10.66)	52.50(12.37)	51.60(10.81)	1.88
강박증(ARD-O)	49.68(10.11)	51.44(10.11)	49.31( 9.23)	1.17
공포증(ARD-P)	49.85(10.23)	49.40(10.38)	49.71( 9.55)	.06
외상적스트레스(ARD-T)	49.23(10.60)	53.06(13.05)	49.00(10.73)	3.86*
인지적우울(DEP-C)	52.82(10.84)	53.10(11.56)	53.03( 9.21)	.02
정서적우울(DEP-A)	50.88(10.70)	54.49(13.07)	51.72(11.49)	2.99
생리적우울(DEP-P)	51.69(11.00)	53.11(11.99)	50.40( 9.22)	1.12
활동수준(MAN-A)	49.88(11.09)	51.29(11.80)	46.64( 9.82)	3.16*
과대성(MAN-G)	48.52(11.89)	50.27(12.64)	47.98( 9.34)	.89
초조성(MAN-I)	52.70(24.88)	53.09(11.66)	49.62(10.36)	.63
과경계(PAR-H)	50.38(10.271)	52.42(10.06)	50.40(11.43)	1.25
피해망상(PAR-P)	48.49( 9.45)	51.23(10.36)	51.26(10.15)	3.24*
원한(PAR-R)	49.44( 9.76)	49.41(11.96)	49.74( 9.61)	.02
정신병적경험(SCZ-P)	45.15(11.93)	46.76(11.38)	45.64( 9.03)	.61
사회적위축(SCZ-S)	48.87(11.07)	49.39(10.05)	47.97( 9.11)	.33
사고장애(SCZ-T)	48.92(11.40)	50.44(11.27)	48.84(11.18)	.61
정서적불안정(BOR-A)	50.92( 9.95)	53.70(11.59)	51.52(11.06)	2.10
정체성문제(BOR-I)	48.16(10.89)	49.97(10.21)	46.10( 9.69)	2.42
부정적관계(BOR-N)	49.09(10.80)	50.57(12.75)	49.33(11.46)	.52
자기손상(BOR-S)	53.38(11.10)	53.90(10.89)	54.33(10.88)	.19
반사회적성격(ANT-A)	56.28(11.04)	54.46( 9.71)	57.57(10.81)	1.64
자기중심성(ANT-E)	50.66(10.47)	54.22(10.20)	51.29(11.05)	3.54*
자극추구(ANT-S)	53.90(11.41)	52.83(11.45)	52.55(11.33)	.45
공격적태도(AGG-A)	50.70(10.48)	52.78(10.46)	52.90(10.10)	1.71
언어적공격(AGG-V)	52.84( 8.97)	55.30(12.02)	52.66(10.58)	2.00
신체적공격(AGG-P)	52.08(11.51)	54.73(11.58)	54.71(11.25)	2.19

\* $p < .05$  ( )는 표준편차

트레스( $F(2, 330)=3.86, p < .05$ ), 활동수준( $F(2, 330)=3.16, p < .05$ ), 피해망상( $F(2, 330)=3.24, p < .05$ ), 자기중심성( $F(2, 330)=3.54, p < .05$ )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는 집단에 따라서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검증 결과 6개의 하위척도 중 4개의 하위척도에서 폭력집단이 절도집단보다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활동수준(MAN-A)에서는 폭력집단이 공갈집단보다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표 5). 이는 폭력집단의 경우 절도집단에 비해서 최근 직면한 문제로 주의력·집중력의 손상, 일상생활에 대한 의욕이나 관심저하, 좋지 않은 경험으로

표 5. 범죄유형별 Tukey검증 결과

PAI 하위척도	사후검증결과
인지적 불안(ANX-C)	폭력 > 절도
외상적스트레스(ARD-T)	폭력 > 절도
정서적 우울(DAP-A)	폭력 > 절도
활동수준(MAN-A)	폭력 > 공갈
피해망상(PAR-P)	n.s.
자기중심성(ANT-E)	폭력 > 절도

n.s. = not significant

인한 지속적 불편감을 겪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폭력집단이 공갈집단보다 신체활동

표 6. 절도집단 비행축발요인의 재범예측변인분석

N=76

	$\beta$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도	exp( $\beta$ )
가족구조적위험요인	.32	.28	1.36	1	.24	1.38
가족기능적위험요인	.18	.16	1.34	1	.24	1.20
학교관련위험요인	-.055	.18	.08	1	.77	.94
비행관련위험요인	.44	.11	14.29	1	.00	1.55
가출위험요인	.43	.18	5.80	1	.01	1.54
개인적위험요인	-.024	.07	.09	1	.76	.97

의 에너지가 많음을 시사한다.

#### 절도집단 재범위험성분석

절도집단의 경우 비행축발요인 6개 영역 중 2개 영역인 비행관련위험요인( $\beta=1.55, p<.01$ )과 가출위험요인( $\beta=.154, p<.05$ )이 예측변인으로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비행관련위험요인이 의미 있게 높은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범률이 1.5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출위험요인이 유의미하게 높은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범률이 1.5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범죄로 인한 파출소나 경찰서 입건 전력, 절도수법 인식 및 사전모의, 만 12세 이전의 조기비행 경험, 상습적 가출, 그리고 가출 후 집단생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재범위험성이 증가함을 시사한다.

절도집단의 PAI 프로파일 분석결과, 불안( $\beta=.93, p<.01$ ), 자살사고( $\beta=1.09, p<.01$ )가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표 7). 불안을 느끼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범률이 0.93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살사고가 있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범률이 1.0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이는 불안과 긴장수준이 높은 비행청소년의 경우

범죄 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하는 반면, 반복적인 자살사고로 자살에 대한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범위험성이 증가함을 시사한다.

절도집단의 PAI 하위척도의 분석결과, 정서적 불안( $\beta=.96, p<.05$ ), 피해망상( $\beta=1.05, p<.01$ )이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표 8). 정서적 불안이 있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범률이 0.96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해망상이 있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범률이 1.0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과 관련된 긴장, 두려움, 신경과민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범위험성이 감소하는 반면, 자신이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믿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범위험성이 증가함을 시사한다.

#### 폭력집단의 재범위험성 분석

폭력집단의 경우 비행축발요인 6개 영역 중 가족구조적위험요인( $\beta=3.66, p<.05$ ), 가족기능적위험요인( $\beta=.23, p<.01$ ), 학교관련위험요인( $\beta=2.00, p<.05$ ), 비행관련위험요인( $\beta=1.80, p<.05$ )이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표 9). 가족구조적위험요인이 높은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범률이

표 7. 절도집단 PAI척도의 재범예측변인분석

N=76

	$\beta$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도	exp( $\beta$ )
불안(ARD)	-.07	.02	11.36	1	.00	.93
자살관념(SUI)	.09	.02	14.78	1	.00	1.09

표 8. 절도집단 PAI하위척도의 재범예측변인분석

N=76

	$\beta$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도	exp( $\beta$ )
정서적 불안(ANX-A)	-.04	.01	5.73	1	.01	.96
피해망상(PAR-P)	.05	.01	7.77	1	.00	1.05

표 9. 폭력집단 비행촉발요인의 재범예측변인분석

N=26

	$\beta$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도	exp( $\beta$ )
가족구조적위험요인	1.29	.52	6.03	1	.01	3.66
가족기능적위험요인	-1.46	.42	11.59	1	.00	.23
학교관련위험요인	.69	.30	5.23	1	.02	2.00
비행관련위험요인	.59	.23	6.51	1	.01	1.80
가출위험요인	.22	.32	.49	1	.48	1.25
개인적위험요인	-.25	.18	1.9	1	.16	.77

3.6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관련위험요인이 높은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범률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관련위험요인이 높은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범률이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기능적위험요인이 높은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범률이 0.23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결혼, 장기결석, 교내처벌, 비행전력이 있는 친구의 존재, 이전 범죄로 파출소나 경찰서 입건, 폭력수법 인식 및 사전모의, 만12세 이전의 조기비행 경험이 있는 경우 재범위험성이 증가함을 시사하며, 통금시간 제한, 외출금지 등 부모훈육이 엄격한 경우 재범위험성이 감소함을 시사한다.

폭력집단의 PAI 프로파일 분석결과, 지배성( $\beta=1.08$ ,  $p<.01$ )척도가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표 10). 지배성이 있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범률이 1.0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주도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한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범위험성이 증가함을 시사한다.

폭력집단의 PAI 하위척도의 분석결과, 강박증( $\beta=1.27$ ,  $p<.05$ ), 정서적 불안( $\beta=1.15$ ,  $p<.05$ ) 그리고 피해망상( $\beta=1.05$ ,  $p<.05$ )이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표 11). 강박증이

있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범이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불안이 있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범률이 1.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망상이 있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범률이 1.0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경직이나 융통성이 부족한 경우,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의욕·흥미가 상실된 경우 또는 자신이 매우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 경우 재범위험성이 증가함을 시사한다.

공갈집단의 재범위험성 분석

공갈집단에서는 비행촉발요인 6개 영역 중 비행관련위험요인( $\beta=1.68$ ,  $p<.05$ )이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표 12). 비행관련위험요인이 높은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범률이 1.6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범죄로 인한 파출소나 경찰서 입건 전력, 공갈수법 인식 및 사전모의, 만12세 이전의 조기비행 경험이 있는 경우 재범위험성이 증가함을 시사한다.

공갈집단의 PAI 프로파일 분석결과, 저빈도( $\beta=1.27$ ,  $p<.01$ ), 조증( $\beta=.78$ ,  $p<.05$ ), 반사회적 특징( $\beta=1.54$ ,  $p<.01$ )

표 10. 폭력집단 PAI척도의 재범예측변인분석

N=26

	$\beta$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도	exp( $\beta$ )
지배성(DOM)	.07	.02	7.51	1	.00	1.08

표 11. 폭력집단 PAI하위척도의 재범예측변인분석

N=26

	$\beta$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도	exp( $\beta$ )
강박증(ARD-O)	.23	.09	6.64	1	.01	1.27
정서적 불안(DEP-A)	.14	.07	4.04	1	.04	1.15
피해망상(PAR-P)	.05	.02	3.85	1	.04	1.05



표 12. 공갈집단 비행촉발요인의 재범예측변인분석

N=21

	$\beta$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도	exp( $\beta$ )
가족구조적위험요인	-.34	.45	.58	1	.44	.70
가족기능적위험요인	-.28	.26	1.15	1	.28	.75
학교관련위험요인	.24	.34	.49	1	.48	1.27
비행관련위험요인	.52	.20	6.59	1	.01	1.68
가출위험요인	-.13	.31	.17	1	.67	.87
개인적위험요인	-.06	.13	.25	1	.61	.93

그리고 스트레스( $\beta=1.13, p<.05$ )척도가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표 13). 저빈도를 나타낸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범률이 1.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사회적 특징이 있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범률이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가 있는 비행청소년의 경우도 재범률이 1.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증이 있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범률이 0.78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사문항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 충동적이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성향이 높을 경우,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 재범위험성이 증가함을 시사하며, 이와 반대로 자아팽창적 성향이 있는 경우 재범위험성이 감소함을 시사한다.

공갈집단의 PAI 하위척도의 분석결과, 공포증( $\beta=.91, p<.05$ ), 반사회적 성격( $\beta=1.08, p<.05$ ) 그리고 언어적 공격성( $\beta=.93, p<.05$ )척도가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표 14). 공포증이 있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범률이 0.91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적 공격성이 있는 비행청소년

의 경우 재범률이 0.93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사회적 성격이 있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범률이 1.0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벌에 대한 공포가 있거나, 분노를 언어적으로 해소하거나, 사회적으로 위축된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범위험성이 감소한 반면에 품행장애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의 전력이 있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범위험성이 증가함을 시사한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충북 및 대전 지역의 비행청소년 중 범법행위로 처음 입건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유형을 구분하고 비행촉발요인과 성격특성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범법행위로 처음 입건된 후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른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을 예측해주는 변인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비행청소년 333명으로서, 이들의 범죄유형을 입건 시 죄목을 기준으로 절도·폭력·공갈집단

표 13. 공갈집단 PAI척도의 재범예측변인분석

N=21

	$\beta$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도	exp( $\beta$ )
저빈도(INF)	.24	.09	7.05	1	.00	1.27
조증(MAN)	-.24	.11	4.64	1	.03	.78
반사회적특징(ANT)	.43	.16	6.99	1	.00	1.54
스트레스(STR)	.12	.06	4.29	1	.03	1.13

표 14. 공갈집단 PAI하위척도의 재범예측변인분석

N=21

	$\beta$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도	exp( $\beta$ )
공포증(ARD-P)	-.09	.03	5.97	1	.01	.91
반사회적성격(ANT-A)	.08	.03	5.81	1	.01	1.08
언어적공격성(AGG-V)	-.06	.03	4.02	1	.04	.93

으로 구분한 후 자료를 분석하였다. 범죄유형별 비행촉발 요인과 성격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비행촉발요인조사결과와 PAI척도점수에 대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서, 비행촉발요인조사서와 PAI척도점수에 대하여 변량분석과 Tukey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처음 입건된 비행청소년 중 재범을 저지른 비행청소년 123명을 골라내서 이들을 대상으로 재범위험 요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비행촉발요인조사서와 PAI척도점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도·폭력·공갈집단에 따라서 비행촉발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비행촉발요인 6개 영역 중 5개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기능적위험요인, 학교관련위험요인, 비행관련위험요인, 가출위험요인 그리고 개인적위험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유발 요인이 전반적으로 범죄유형에 따라서 다름을 시사한다. 경찰서에 입건된 비행청소년에 대한 면담결과는 범죄유형별 비행청소년의 특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면담내용을 검토해보면, 경찰서에서 만났던 절도집단의 경우 가족기능적위험요인이 비행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절도를 저지른 비행청소년은 가정에서 가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및 애착이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폭력집단의 경우 학교관련위험요인이 비행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교내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무단결석이 높았다. 또한 비행에 노출되어있는 또래친구들이 많았다. 면담경험에 기초할 때, 이들은 또래집단을 형성하여 몰려다니는 편이었으며, 집단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면을 충족하려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공갈집단의 경우 가출위험요인이 비행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갈집단의 비행청소년은 절도집단이나 폭력집단보다 비행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결과 이들은 상습적으로 가출을 반복하고 있었다. 가출 후 처음에는 찜질방, PC방에서 생활하다가 집에서 가지고 나온 돈이 떨어지면 혼자 자취하는 친구 또는 선배들과 집단생활을 하게 된다. 집단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유희비 등을 구하기 위해서 친구 또는 선배들과 같이 범법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집단생활은 청소년에게 범죄계획, 범죄수법을 익히는 등 더

많이 범죄에 노출되게 하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공갈집단의 비행청소년의 경우 범법행위로 입건되지 않은 동종의 여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에 따른 PAI 성격특성을 분석한 결과, 타당도 척도 중 긍정적 인상(PIM)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고려척도에서는 공격성(AGG), 자살사고(SUI)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I하위척도에서는 인지적 불안(ANX-C), 외상적 스트레스(ARD-T), 활동수준(MAN-A), 피해망상(PAR-P), 자기중심성(ANT-A)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종국(2002)의 연구에서 비행청소년의 개인적 유발요인으로 불안증, 공격성, 반사회성이 범죄 위험성과 가장 관계가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 범죄자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관련성이 높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만, 알코올, 약물남용 관련성은 일치하지 않았다(Groom, 1999; Meloy & Gacono, 1995), 면담결과, 경찰서에 입건된 절도집단의 경우 대부분 오토바이절도의 중범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훈방 처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자신을 좋게 보여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한 결과, 긍정적인상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폭력집단의 경우 폭력가해자로 입건되기 이전에 폭력피해자로서 가족으로부터 폭력을 당했거나 선배 또는 친구들로부터 폭력을 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폭력집단의 비행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특히 분노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폭력집단과 달리 공갈집단의 성격특징은 드러나지 않았다.

둘째, 범죄유형에 따른 재범위험성을 예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절도집단의 경우 비행촉발요인 6개 영역 중 2개 영역이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관련위험요인, 가출위험요인이 예측변인으로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AI척도에서는 불안(ANX), 자살사고(SUI)가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PAI하위척도에서는 정서적 불안(ANX-A), 피해망상(PAR-P)이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범죄로 파출소나 경찰서 입건 전력, 절도수법 인식 및 사전모의, 만12세 이전의 조기비행 경험, 상습적 가출, 가출 후 집단생활 경험이 있고, 자살사고(SUI)척도점수와 피해망상(PAR-P)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재범률이 높음을 시사하며, 반면에 불안(ANX)과 정서적 불안

(ANX-A) 점수가 높으면 재범률이 낮음을 시사한다. 경찰서에서의 면담결과, 재범을 저지른 절도집단의 비행청소년은 가출경험이 많았으며, 범행수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초범인 비행청소년에 비해서 불안감이 적었다. 초범인 비행청소년은 경찰서에서 면담 시 눈물을 보이거나 “부모님께 죄송하다, 잘못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반면, 재범으로 입건된 비행청소년은 경찰서 면담 시 피상적으로 답변하였으며 표정의 변화가 없는 편이었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사고가 있었으며,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신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절도집단의 재범 위험성은 비행축발요인 중 가출위험요인, 비행관련위험요인이며, PAI 척도 중 자살사고척도, 피해망상척도, 불안척도, 정서적 불안척도 점수를 토대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폭력집단의 경우 비행축발요인 6개 영역 중 4개 영역이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구조적위험요인, 가족기능적위험요인, 학교관련위험요인, 비행관련위험요인이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PAI척도 중 지배성(DOM)이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PAI하위척도에서는 강박증(ARD-O), 정서적 불안(DEP-A), 피해망상(PAR-P)이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결혼, 장기결석, 교내처벌, 비행 전력 있는 친구의 존재, 이전의 범죄로 파출소나 경찰서 입건 전력, 폭력수법 인식 및 사전모의, 만12세 이전의 조기비행 경험이 있는 경우 재범률이 높아지며, PAI척도 중 지배성(DOM), 강박증(ARD-O), 정서적 불안(DEP-A) 및 피해망상(PAR-P)이 있을 경우 재범률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반면에 귀가시간의 감독, 외출금지 등의 부모훈육은 재범률을 감소시킴을 시사한다. 경찰서에서의 면담결과, 재범을 저지른 폭력집단의 비행청소년의 경우 결손가정이 많았으며, 가족들과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무단결석 및 교내처벌의 경험이 많았다. 또한 가정에서 아버지로 부터의 폭력의 피해자로서 이를 통해 폭력을 학습했거나, 학교에서 선배로부터 폭력을 당해서 학습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폭력에 대해서 둔감하고, 자기주장이 강한 편이었다. 더불어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서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였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볼 때, 폭력집단의 재범 위험

성은 비행축발요인 중 가족구조적위험요인, 가족기능적위험요인, 학교관련위험요인이며, PAI척도 중 지배성, 강박증, 정서적 불안, 피해망상 점수를 토대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공갈집단의 경우 비행축발요인 중 비행관련위험요인이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PAI척도 중 저빈도(INF), 조증(MAN), 반사회적 특징(ANT)이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PAI하위척도 중 반사회적성격(ANT-A), 스트레스(STR), 공포증(ARD-P), 언어적공격성(AGG-V)이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범죄로 인한 파출소나 경찰서 입건 전력, 공갈수법 인식 및 사전모의, 만12세 이전의 조기비행 경험이 재범률이 높아지며, PAI의 저빈도(INF), 반사회적 특징(ANT), 반사회적성격(ANT-A), 스트레스(STR)가 높을수록 재범률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반면에 조증(MAN), 공포증(ARD-P), 언어적공격성(AGG-V)은 재범률을 떨어뜨림을 시사한다. 경찰서에서의 면담결과, 재범을 저지른 공갈집단의 비행청소년은 만 12세 이전에 조기비행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비행 전 계획을 세우거나 비행관련 수법을 잘 알고 있었다. 더불어 성격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편이었다. 분노나 짜증을 느끼면 물건을 던지거나 손으로 벽을 때리는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에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기보다 언어적으로 욕을 하거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범률이 낮았다. 또한 활동에너지가 많은 비행청소년의 경우 비행동기를 심심해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해보았다는 비행청소년들이 많았다. 재미로 하기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재범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에 미루어 볼 때, 공갈집단의 재범 위험성은 비행축발요인 중 비행관련위험요인이며, PAI척도 중 저빈도, 반사회적 특징, 스트레스, 조증, 공포증, 반사회적 성격, 언어적 공격성을 토대로 예측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절도·폭력·공갈집단에서 모두 비행관련위험요인이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범법행위를 할수록 범죄수법이나 범죄 후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 잘 습득하게 되어 재범 위험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비행관련위험은 모든 범죄에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시사된다.

이상의 결과는 일선경찰서에서 범죄심리사가 조사실무

에서 사용 중인 비행촉발요인 조사서와 PAI 성격검사가 범법청소년의 범죄유형별 특성을 구분해서 제시해주며, 재범위험성을 예측하는 데에도 유용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범죄유형별로 비행환경 및 관련 성격특성 상으로 구분된다는 것이 경찰서에 입건된 범법청소년에게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실무의 자료가 재범 예측에서도 실제로 유용함을 시사한다고 여겨진다.

청소년범죄는 매일 매일의 사건사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날들이 없을 정도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다. 최근에 보도된 한 사건으로 고교생들이 여중생을 여관, 학교놀이터 그리고 공원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윤간, 폭행한 사건이나, 한 중학교에서 자신을 밀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한 사건 등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청소년범죄가 점점 흉포화, 지능화 되어가고 있으며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처럼 청소년범죄가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청소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교정단계의 소년범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서, 비행의 원인을 알아보거나 비행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려고 했고,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북·대전지역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최근 경찰서 범죄심리 실무에서 비행 판별에 사용하고 있는 비행촉발요인조사서와 사법장면에서 성격평가를 하는데 유용한 PAI를 적용하여 재범 관련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통제집단이 없이 비행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라는 점이다. 일반청소년을 통제집단으로 사용했다면, 범죄유형별 차이가 범죄유형의 구분에 따른 고유한 차이인지, 일반청소년도 갖고 있는 특성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면, 비행유형별 PAI 점수상의 차이가 비행청소년의 고유 특성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둘째, 초범과 재범 사이의 시간간격을 통제하지 못한 점과, 재범을 했더라도 체포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다. 초범과 재범사이의 간격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해서 동일한 기간 동안 추적하는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 3개월에서 최고 24개월로 재범 추적기간

을 잡았기 때문에 동일한 기간 동안 장기 추적했다더라면 그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차후 이런 제한점이 보완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정브리핑 (2007). <http://new.naver.com/ma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8&aid=0000031032&>
- 김영환, 박은영, 정상문, 홍상황 (2002). 수형의 PAI파일과 범법행위 예언지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941-954.
- 김지은 (1998). 청소년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수, 김현실 (2001). 재범 비행청소년의 예측인자 분석. 신경정신과학, 40(2), 279-291.
- 박은영, 홍상황, 정상문, 김영환 (2002). 수형자의 PAI파일과 범법행위 예언지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941-954.
- 서동혁, 정선주, 손창호, 김원석, 고승희, 함봉진, 조성진, 김영기, 이중재 (2001). 구속된 비행 청소년들의 석방 후 6개월 이내 재범의 예측요인. 신경정신의학, 40(3), 463-476.
- 양종국 (2002). 비행청소년의 비행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0(2), 101-121.
- 유성경, 이소래 (2001). 청소년 비행수준에 따른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 187-205.
- 이동원 (2003). 소년범죄자의 재범특성에 관한 고찰: 범행의 발전양상과 재범가능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15(2), 335-360.
- 이성식 (1999). 비행친구와 비행과의 관계: 통합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2), 193-221.
- 이수정, 윤옥경 (2003). 범죄위험성의 평가와 활용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 68-109.
- 이수정, 조은경 (2004). 경찰단계에서의 소년범 위험성 평가를 위한 비행촉발요인 조사도구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27-43.

- 한재숙 (2004). 청소년 재비행의 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2001). PAI 무선반응과 인상관리의 탐지 : 타당성 척도의 1분할점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0, 165-177.
- Butcher, D. A. (2000). Preventing school failure and dropout. In R. J. Simeonsson(Ed.), *Resilience, and prevention; Promoting the well-being of all children* (pp.103-124). Baltimore, MD : Paul H. Brookes.
- Cleckley, J. (1976). *The mask of sanity*. St. Louis, Missouri; Mosby.
- Gacono, C., Meloy, J., Sheppard, K., Septh, E., & Roske, A. (1995). A clinical investigation of malingering and psychopathy in hospitalized insanity acquittees. *Bulletin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23, 387-397.
- Gendreau, P., Little, T., & Goggin, C. (1996). A Meta-analysis of the predictors of adult offender recidivism, *Criminology*, 34, 575-607.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oom, B. (1999). Handing the triple whammy; Serious mental illness, substance abuse, and criminal behavior. *Correctious today*, 61, 114-119
- Guerra, N. (1999). Se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ers; Gaps in knowledge and reserch priorities. In R. Loeber & D. P. Farrington(Eds.), *Serious & Violent juvenile Offenders*(pp.389-443).
- Hear, R. (1991).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 Revised*. Tonawanda, NY. Multi-Health Systems.
- Hoge, R. D., Andrew, D. A., & Leschied, A. W. (1994). Tests of three hypotheses regarding the predictors of delinquency. *J Abnorm Child Psychol*, 22(5), 547-559.
- Howell, J. C. (1998). *Guide for implementing the comprehensive strategy for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the comprehensive strategy for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JJDP.
- Laub, J. H., & Lauritsen, J. L. (1993). Violent criminal behavior over the life course; A review of the longitudinal and comparative reserch. *Violence and Victims*, 8, 235-252.
- May, C. (1999). *Explaining reconviction following a community sentence; the role of social factors*. Home Office Research Study 192, Londen; Home Office.
- Meloy, J. R., & Gacono, C. (1995).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Morey, L. C., & Quigley, Brian D. (2002). The use of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 in assessing offen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6(3), 333-349.
- Wang, E. W., Rogers, R. Giles, C. L., Diamond, P. M., Herrington-Wang, L. E., & Tylor, E. R. (1997). A pilot study of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 in corrections : Assessment of malingering, suicide risk, and aggression in male inmates. *Behavioral Science and the Law*, 15, 469-482.

##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Risk Factors of Recidivism Classified by Offense Types of Juvenile Delinquents - Using Risk Assessment Tool and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

**Nam Hee Lee      Bong-Keon Le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offense types of juvenile delinquents, compare the scores of the risk assessment tool and PAI among these types, and find the recidivism risk factors. First, 333 incipient juvenile criminals who had committed crime in the areas of Chungbuk and Daejeon were categorized into thief/violence/blackmailing group (the offense type) and the scores of the risk assessment tool and PAI were compared among the offense types. The results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offense types on the scores of the risk assessment tool, such as family functioning risk factor, school risk factor, delinquent risk factor, away-from-home risk factor, and personal risk factor. PAI scores among the offense types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on PIM (Positive Impression Management) of the validity scales, and AGG (Aggression), SUI (Suicide Ideation), ANX-C (Anxiety-Cognitive), ARD-T (Traumatic Stress), MAN-A (Activity Level), PAR-P (Persecution), and ANT-E (Egocentricity) of the treatment scales. It suggests that the risk factors and the personality traits among the offense types are distinguishable. Secondly, the juvenile recidivists among those who had been booked on the first offense were followed up to find out the relevant recidivism risk factors among the offense types. In case of thief offense group, delinquency-promoting factors, such as delinquent risk factors and away-from-home risk factors and predictor variables, in PAI, were ANX (Anxiety), SUI (Suicide Ideation), ANX-A (Anxiety-Affective), and PAR-P (Persecution). There were delinquency-enhancing factors, such as family structure risk factors, family history risk factors, school risk factors, and delinquent risk factors in case of violence group and predictor variables, in PAI scales, were DOM (Dominance), DEP-A (Depression-Affective), and PAR-P (Persecution). In case of blackmailing group, delinquent risk factors were predictor variables, in PAI, were INF (Infrequency), MAN (Mania), ANT (Antisocial Features), ANT-A (Antisocial Behaviors), STR (Stress), ARD-P (Phobias), and AGG-V (Verbal Aggression). These results as above suggest that the risk assessment tool and the PAI would predict the recidivism in juvenile delinquents.

***Keywords: juvenile delinquents; offense types; risk assessment tool; PAI; recidivism risk***

1차원고 접수일 : 2009년 3월 17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5년 5월 24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5월 25일